



무주군, 대전 호안과의원과 업무협약

무주군은 12일 무주군청 3층 군수실에서 대전 호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민 눈 질환 예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효 호안과의원 대표 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 군민의 건강 증진과 회복에 힘쓰기로 한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진료·입원·검사·재활 등에 협조하고, △의료시설 이용, △의료정보 및 기술 교류, 교육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매년 어르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눈 질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군민 안질환 예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12일 남원초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영석 지부장과 농협 직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아침밥의 필요성과 쌀의 영양, 그리고 건강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이야기과 퀴즈, 그림 자료, 쌀을 활용한 음식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이후에는 쌀로 만든 건강 간식도 함께 나누며 우리 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수해 대비 민·관 협력 교육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11일, 재난대응 업무 협약기관과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해 상황 대비 재난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6대 핵심 과제 중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수방자재 실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수증펌프 등 주요 장비를 직접 작동해 보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용지면 사회단체, 화재 피해 가구에 680만원 전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사회단체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68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지난 1일 용지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현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와 주거 모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어울림봉사회, 남녀의용소방대 등 4개의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총 68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가정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지역 단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결과다.

피해 가구는 “뜻하지 않은 화재로 집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큰 위로가 됐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아이와 함께 용기를 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각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정에서도 피해 가구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골프 꿈나무’ 사업 결실

전북 교육감배 학생골프 대회서 계남초 이준우 학생 남자초등부 1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이 2024년부터 추진한 골프 꿈나무 육성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장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계남초등학교 5학년 에 재학중인 이준우 군은 지난해 8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골프를 처음 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군은 지난 9~10일 열린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생골프 선수권대회 남자초등부 1위를 차지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또 2025 박원경배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와 제99회 전북특별자치도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도 남자초등부 1위를 연달아 석권했다.

현재 이 군은 7월 열리는 전국대회를 준비하며 기량을 더욱 갈고닦고 있다.

이 군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로 했지만 연습할수록 더 ভাল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는

/장수=고관호 기자



당찬 포부를 밝혔다.

추영곤 교육장은 “짧은 시간 안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이준우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장수의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골프 꿈나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 동진면, 어르신 위한 디지털 체험·문화 향유

부안군 동진면은 12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기획으로 ‘멋진 인생, 멋진 하루!’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무안바실영 화관에서의 영화 관람 △점심식사 및 카페 이용에서 키오스크 주문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참여 어르신들에게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당일 관내 교회 미니버스와 자율방범대의 차량 봉사(지원봉사자명)가 지원되어 안전한 이동이 가능했다.

참여한 김모(78) 어르신은 “키오스크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혼자서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자 동진면장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자리 참여를 넘어 문화적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부귀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와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 진안군은 12일 부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의료지원, 구강검사 및 보건교육, 검안·돌보기 지원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농촌사랑 장수사진 촬영사업」을 진행하며 고령·취약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장수사진 촬영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제한 등으로 사진촬영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는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협력력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배 조합장은 “농사일에 지친 농업인들에게 농촌 왕진버스가 직접 찾아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 초등생에 학용품 등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회장 장성태)는 12일, 전주시 완산구 관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학용품과 화분을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과 초록의 생명을 담은 화분을 전달함으로써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장성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는 산불예배, 환경정화, 교육지원, 사랑의 김장하기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부설초, 입학 100일 기념 축하 행사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11일 입학 100일을 맞아 1학년 학생들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군산부설초등학교 입학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1학년 학생 전체가 모인 축하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평가표를 작성하며 입학부터 지금까지 100일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반의 학부모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처음 입학할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렇게 잘 적응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함께 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신철 교장은 “군산부설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꾸준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필 것이고,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장수경찰서 치안 현장 방문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12일 장수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치안 협업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문 청장은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협력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치안 활동에 협조하는 기관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협력단체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감 권혁구(경비안보과), 경사 신용호(경무계), 순경 김범석(장계과출소)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 위한 신속 직원 관사를 직접 돌아보며 점검하였으며, 여름 휴양철을 맞아 관광객이 방문하는 방화동 주변 탐방로 재난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장수경찰서 직원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허려움에 처한 도민의 입장과 상황을 항상 먼저 살피고 공감할 줄 아는 이웃 같은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경찰,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방문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군 기준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홍보에서는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고령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문해 횡단보도 이용 및 무단횡단 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야간 외출시 밝은 옷 착용, 농사일 중간중간 틈틈이 휴식하기 등 작년 교통사고 사례와 함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이장단 회의의 사고예방 홍보, 마을안내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홍보활동 외에도 대한노인회, 고창시니어클럽 등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 모양지구대(경감 황문주)는 지난 11일 합동순찰의 날을 맞아 고창 여성자율방범대와 함께 고창타치널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일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합동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합동순찰의 날은 경찰과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정기적으로 함께 참여해 민·경협력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역 내 범죄예방과 공동체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순찰은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을 비롯한 경찰관 및 자율방범대원 등 총 15명이 참여해, 야간 시간대 주택가·상가밀집지역·공원 등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모양지구대는 도보 및 순찰자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주·정차, 청소년 비행, 소란 행위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범죄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하였다.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자율방범대와 협업은 지역 치안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